4월혁명 30주년 기념식 거행

6백여명 참가한 가운데 본관앞 민주광장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4월혁명 30주기 기념식 및 자주경희 일만학도 4월투쟁 진군대회'를 6백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19일 오후1시부터 본관앞 민주광장에서 갖고, '30년전 이승만독재치하와 다름없는 민자당일당독재의 장기집권음모에 결연히 투쟁할것'을 결의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고 이기태선배에 대한 추도사낭독, 4월혁명이 가지는 현재적 의미와사학과 고구려 유적답사준비위원회의 북한답사가 통일운동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집회후 4백여명의 학생은 교문앞에서 '4·19정신 계승하여 반민중 반통일세력 민자당독재 끝장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으며, 동대문등 시내곳곳에서 서총련산하 각 학교와 함께 연합가두시위를 벌였다.

또한 19일 오전 10시에는 4·19기념탑에서 본교직원노동조합의 '4월혁명 30돌 경희노조 기념식'이 있었고, 오전11시부터는 법대교수, 학생들이 '고이기태선배 추모식'을 가졌다.

한편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학생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18일 본교에서 신갈까지 4·19기념 마라톤을 실시했으며 노래패연합 '백두울림' 주최로 우리노래경연대회도 가졌다.

또한 지난 19일에는 공대교육관앞 통일광장에서 4·19기념집회 후 가두로 진출, 7백여명의 학생들이 시민홍보전을 가졌다.

또한 용성총련차원에서 본교생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남등지에서 연합 가두시위를 벌였다.

교심위, 정치경제학특강 실시

수원은 매주월요일 서울은 수요일에

양캠퍼스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경제학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특별강연회를 실시 중이다.

서울캠퍼스는 '새로운 경제학강의' 라는 주제로 오는 5월30일까지 매주 수요일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정운영한겨레논설위원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가진다.

'자본주의사회의 형성'이라는 소주제하에 지난18일 첫회를 실시한바 있는 이번 강연회는 앞으로 '생산과 가치의 증식', '계급과생산양식', '국가독점자본주의와 이행의 문제'등의 소주제로 5월30일까지 네차례에 걸쳐 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수원캠퍼스는 '자본의 이해'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6월4일까지 매주 월요일 체육교육관 시청각실에서 강연회를 가지며 정원호 한신대강사를 강사로 초청한다.

이번 강연회의 참가 신청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사무실, 총학생회실, 각단대학생회실에서 접수하면 되며 '상품과 화폐', '자본과 임여가치', '이윤율의 저하와 공황', '현대 자본주의 개괄'등의 소주제로 총7회를 실시한다.

수원총학, 대의원장 선출에 이견

정족수 기준두고 대의원회와 대립

수원캠퍼스 총대의원회는 지난 4일 체육교육관 시청각실에서 있은 총회에서 김재호(환경·4)군을 총대의원장으로 선출했으나 이에 대해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이견을 보임에 따라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대의원총회 정족수 104명 중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대의원 총회에서 김재호군은 단독후보로 출마하여 78.8%의 찬성으로 대의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총학운영위는 "학년정원이 1백명이 넘는 과의 경우 학년당 대의원이 1명씩 추가되어야 하는데 현 재적의원 1백4명은 이 인원이 제외된 것이므로 이날 참석인원53명은 과반수에 미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의원회측은 "조사결과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 학생들을 정원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정원1백명이 넘는 과의 학년당 대의원도 1명씩이 타당하다"며 "정족수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장백기위원장 항의 단식 농성

노조 임금인상안은 18.2%로 결정

본교 직원노동조합 (이하직원노조)은 직원 인사이동, 승급및 승진규정 개정안 등을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데 대해 작년 12월27일 합의한 단체협약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 이에 대한 항의로 장백기 노조위원장이 항의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7일째 단식농성중인 장백기(직위해제)노동조합 위원장은 △불합리한 인사 즉각철회, △단체협약 무시한 개정 인사규정 원천무효화, △한의대 이상오군 사망사건에 대한 직원징계반대, 행정책임자 처벌, △일용임시직 정식임용 즉각 시행, △학원자주 압살하는 개악 사립학교법 재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직원노조는 학교당국이 개정된 '승급 및 승진규약'을 은밀하게 작업해서 갑자기 발표한 것과, 4월중에 발표된 개정안중 불합리한 조항을 3월1일부로 소급해 적용한 것을 비난했다. 또 "행정부서 개편 및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위원회의 구성에 합의했으나 한번도 노사협조에 의해 인사이동 등이 결정된 예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9일 오후1시 본관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임금인상안을 18.2%로 결정했다. 이의 근거로 기본급 3만원 인상, 기본급의 4.5% 정률인상, 학생지도비 연봉의 5%신설, 장기근속수당 개선, 행정직원에 대한 행정수당을 1만5천원 신설하는 것이 그 골자이다.

제1회 청맥문학상

수원캠퍼스 문학패 동아리 '청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광주항쟁 10주년계승을 위한 '제1회 청맥문학상' 원고를 5월말까지 모집한다.

시, 소설등 총8분야를 모집하는 이번 문학상에선 최우수작1편, 각 부문별 당선작1편, 각 부문별가작 1편을 선별, 시상한다.

제2회 민족학교 개최

오늘부터 27일까지 강연회등 마련

'제2회 민족학교'가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학술부 주최로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학원내 선진학문과 선진사상을 통해 학우대중의 자주적 사상의식 발현에 기초를 마련하고 학회와 학생회의 강화에 기여하자'라는 취지로 개최되는 이번 민족학교의 구체적 일정은 다음과 같다.

△23일(민주의 날)=입학식및 문화행사 (노래여울의 노래극)

△24일(반제의 날)=초청강연 및 조별토론, 김명식(아라리 연구소장)의 '우리집에 왜왔니, 왜왔니'(제국주의 본질과 한국침략사)

△25일(연대의 날)=영화상영

△26일(자주의 날)=초청강연 및 조별토론, '80년대 남한의 반미자주화운동과 제3세계 반미운동

△27일(통일의 날)=초청강연 및 종업식, 문화행사(민속연구회-우리공장이야기)

강연내용-민중의 주인된 삶을 위하여, 백원담(전노협 연대사업국장)

김민채(정경대·경제)교수 별세

지난 19일 숙환으로 경희의료원서

김민채(정경대·경제)명예교수가 지난 19일 오전 5시 5분에 경희의료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故김교수는 1922년생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59년 4월 본교 조교수로 임용되어 84년도에 정경대학장을 역임했으며 87년 8월 정년퇴임한 후 현재까지 명예교수로 재직해 왔었다.

장지는 전남 장흥군 용산면 규산리 선영이며, 유족으로는 미망인 김순자여사와 1남3녀가 있다.

취재노트

그대여! 덤으로 사는가?

◇…그대여! 덤으로 사는가?

얼마전 고황골에서는 4·19 기념행사가 열려 獅형들의 수업 참여도가 평소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하던데….

'설마 오늘은 출석 안부르겠지'하는 얄팍한 생각을 한 일부 獅형들이 덤으로(?)생긴시간을 노는데 써버렸다고.

이를 본 某교수님 曰 "수업도 빠지고 시위도 불참한 학생들이 으뜸가는 고얀놈들이라, 소중한 삶을 떨이로 키워 팔아서야 되겠느냐?"고 일갈

◇…교수님 받으세요!

교수님!아니 선배투사님! 바로 엊그저께 저희는 '4·19혁명 30주기 행사'를 가졌지요. 아시는지요?

당시 독재정권의 폭압에 열렬히 항거하다 돌아가신 선배 열사들의 굳은 기개가 면면히 살아오는 지금.

4·19의 주역이셨던 교수님들이 직접 오셔서 전해주시는 격려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시는지요.

◇…서천골 아르바이트 유망직종

최근 강남의 스쿨버스 승차장에는 獅형들의 흔탁한 질서의식을 바로 잡아주는 이가 나타나 성실(?)하게 질서를 지켜오던 獅형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문제의 獅형들이 많다하니 이제는 '철판용접' 아르바이트 獅형도 고용해야 할듯.

◇…김치가 뭐꼬? 뭐다냐?

요즘 獅형들의 먹고 싶은 음식이 '김치'라는데.

노트子 알아보니 음식점마다 김치파동이 일어 라면 주문엔 아예 단무지만 따라나오는 실정이라고.

나랏님요! 애꿎은 농민의 제값도 못받는 농산물이 도대체 밥상에서는 금사라기로 둔갑을 하니 어찌된 일인지요.

◇…오로지 연대만이 살길이어라

KBS노조파업에 동참하고 계신 임직원 여러분 방송민주화 실현을 위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B일비재했던 방송언론탄압의 책동, 이제는 더이상 참지 마십시오. 물러서지도 마십시오.

S(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학원소식

교수동정

안주옥교수 북경행

▲안주옥(공대·토목과)=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논문발표및 동제대학 시찰, 교류차 북경행 ▲이기형(의대·의학과)= 오는 28일부터 5월8일까지 89차 대장, 직장 외과학회 발표차 미국행

동문모임

울산고 동문회

【서울캠퍼스】▲울산고=오는 28일 오후 4시 건대앞 송림원 ▲예일·환일고=오는27일 오후 5시 녹원 ▲신성·안양여고=오는 26일 오후 5시반 녹원

【수원캠퍼스】▲오산고=오는 26일 오후5시 1호관휴게실 ▲부평고·여고= 오는25일 오후5시 1호관 휴게실 ▲대신고=오는 27일 오후5시30분 1호관휴게실▲부산동성고·삼성여고= 오는 오후 5시 30분 1호관휴게실 ▲휘문고·정신여고 =오는27일 오후5시20분 2호관학생식당

습 득

습득자 본사편집실로

【서울캠퍼스】◆지갑= ◇임지현(영교·90), 지난 30일 낮 2시경, 학교앞 상가. ◆책가방= ◇김용훈(무역·3), 학교앞 술집 ◆곤색상의=◇엄영민 (체육학·90), 지난 9일 골프장.

【수원캠퍼스】◆밤색지갑= 유정권(기계·3)

분 실

분실자 본사편집실로

【서울캠퍼스】◆학생증 △ 김지환(기악·90) △정현조(무역·89) △백민경(의상·88) △고경옥(영교·87)△한상란(태권89)△유한선(기악·89)△박상민(화학·89)△양종현(화학공·89)△최규정(한의예·88)△김한석(지리·88)△이순희(수학·88)△김지성(경영·89) △이승은(성악·88) △남덕호(의예·89)△김원중(기계공학·88)△이계강(지리·87) △허정아(건축공학·88)△ 김미정(무용·88)

朔風

"新思考외치던 YS행동은 저질코메디"

민자당의 김영삼최고위원은 운이 '억수로' 좋았다. 박철언씨를 정무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만든 10일 발언만 없었더라도, 그날의 발언이 서울 법대 출신답게 또 장관이라는 公人답게 세련된 논평이기만 했어도 훨씬 위기에 처할 사람은 김영삼씨였지 박철언씨가 아니었다.

소련 방문이후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듯 들떠 있던 김영삼씨가 천길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위기감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자당내 민주계 의원들의 동요가 현저해지면서부터였다.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의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될지 도무지 자신이 없었던 민주계 의원들은 신당 합류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갖기 시작했다. 비록 서로 말은 못해도 '박장관 말에 의하면 3당 합당시의 예상처럼 김최고위원이 제2인자의 위치를 확실히 보장받은 것도 아니라는데 현재처럼 민주계가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했다가 14대 총선에서 밀려나는 것은 아닌지…"하는 절박한 심정이 민주계 의원들 사이에 퍼져 있던 것이 사실이었다.

김영삼씨는 소련 방문의 성과에 대한 보도가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현저히 퇴색하고 있는데 당황하고 있는 찰나, 선거에서마저 민자당의 적극 반대세력이자 자신에게 등을 돌린 민주당(가칭)이 압승을 거두자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당권을 보다 확실히 장악하기 위한 '승부수'로 나온 것이 바로 청와대 당직자회의 불참이라는 強手였다. 이 무리手는 개혁의지의 퇴보와 공작정치의 부활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기는 했지만 자칫하면 단한번에 그의 정치생명을 마감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방법이었다.

이런 절대절명의 긴박한 순간에 행운의 여신은 일단 김씨 쪽을 향했다. 3당 합당 이후 민자당이 여론의 향배에는 등을 돌린채 계속 물리적인 힘만을 앞세운 강공 드라이브로 일관한 것처럼 박철언씨 역시 자신의 힘만을 과신한 나머지 최대의 실책을 범했다. 보궐선거에서의 참패나 박장관의 사표 제출이나 이 모두가 주권자인 국민의 참된 뜻을 거스른 당연한 결과이다.

여기서 새삼 반추해보는 대목은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의 허구성이다. 비록 교묘한 언변과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을 하기는 했으나 그들 스스로 민자당 창당의 정신을 해치고 말았다. 신당 선언발표문에 "당파적 이해로 분열 대결하는 정치에 종지부를 찍기로 했다. 지난날의 배타적 아집과 독선, 투쟁과 반목의 구시대 정치를 활활 타는 용광로에 불사르기로 했다"는 구절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날만새면 신사고를 외치던 사람들이 보여주는 구사고의 행태는 코미디의 차원도 못돼는 저질 '파워 게임'에 불과하다고 비난할 때 그들은 또 어떠한 말을 할까. 김영삼씨는 자신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김영삼이를 순간적으로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순 없다. 국민 역시 순간적으로 속일순 있지만 영원히는 속일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 말이 스스로 그의 족쇄를 채우는 말이 될 것은 생각하지 못했을까. 〈妖妖〉

90년도 대학 직장 예비군 교육

대학 직장 예비군 교육이 현재까지는 향토사단에서 실시됐으나 향토사단의 수용능력 부족과 편의시설 미비로 90년도 부터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편의시설이 양호한 초현대 시설을 갖춘 학군교(문무대)에서 전·후반기를 구분치않고 1인당 2일(16시간)간 교육토록 하였음.

후기 졸업생 및 취업시험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함.

1. 교육대상: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예비군 연대 소속 대원

2. 대상별 일자

조별 \ 일자		5월 7일-5월 8일	5월9일-5월10일
A	1	대학원 간부반·교직원·의료원(A조)	정경대 (경영,경제,회계)
	2	대 학 원	정경대(무역,정외,신방)호전
B	1	문 리 대·한 의 대	2부대. 의료원(B조)
	2	법 대. 기 타 대(사·음·체·의·치·산,공,약대)	삼유대. 타대학 위탁 교육생

매일 08-17시(8시간) 매일 07:40분까지 학군교 개별 도착

3. 교육장소:학생중앙군사학교(문무대)

4. 이동방법:학군교(문무대) 입구 삼거리까지 개별도착후 삼거리-문무대간 수송버스 7대왕복운행
*일반버스 노선: 잠실-성남간, 16-1(직통). 570. 570-2. 70. 100. 100-2. 30번

5. 교육면제대상
가.90년도 전역자 및 보충역 해제자
나.만41세 이상 장교. 하사관
다.소집 면제자(미필 보충역)
라.군속 병무담당 공무원등 법규 보류자(보류 신청서 제출후 면제)
마.소속 지역에서 금년도 16시간 이상 기본교육 이수자
바.금년도 부터 단기하사 이상자(일반하사 제외)는 11년차 부터 교육 보류

6. 유의사항
가.90년도 부터 전·후반기 구분없이 1인 2일(16시간)간 교육을 실시함.
나.예비군복(모자.상.하군화)은 휴대하여 환복 장소에서 환복하며 복장 불량자는 귀가 조치함. *복장불량자는 입소불가, 특히 군화(중요사항임)
다.90년도부터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개별통지 하지않고 공고로 대신하니 착오 없기 바람 (학교게시판, 단대게시판, 대학주보)
라.학생증 및 신분증명서 지참
마.중식 지참 (학군교 도시락 1,500원 우동 500원 판매)
바.시간 지연 도착자는 지연시간 만큼 연장교육을 실시하니 시간엄수 할것.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 직장 예비군 연대장

제 9 회 전국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1.주제 :·한민족공동체의형성과 '남북연합'의 실천적 과제
·남북한 평화정착 및 신뢰조성 방안
·대학인의 통일의식과 통일문제 인식의 새 방향
※ 위 논제 중택 1

2.대상 :·대학(대학원)재학생

3.시상 :·최우수작1편: 상장 및 부상100만원
·우수작2편: 상장 및 부상 각50만원
·가작 5편: 상장 및 부상 각30만원
·장려 5편: 상장 및 부상 각20만원
※최우수· 우수· 가작 입상자에 대해서는 공산권 (동·소련등) 연수기회부여

4.마감 : 1990년 8월30일

5.분량 : 200자 원고지 기준80매 내외

6.발표 : 1990년 10월중 (개별통지)

7.보낼곳 : 국토통일원 교육홍보국 교육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

8.기타 :·응모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성명과 주소(전화번호), 소속대학·학과 명기
·논문제출시 재학증명서 1부 첨부
·자세한 내용은 본교 국제평화연구소(961-0201) 국토통일원(738-7522)에 문의 바람.

경희대학교 국제평화연구소

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학생여러분에게 !

학자금 대출은 학생여러분의 면학을 돕기 위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입학금 또는 등록금을 대출하여 드리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할상환하는 융자제도로써 국민은행은 보다 많은 학생여러분에게 학자금을 융자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상환방법

구 분		상 환 기 간	상 환 방 법
단 기 학 자 금		대출후1년이내	매월소정 납입기일에 대출원금의 균등분할액과 대출금잔액에 대한 이자를 납입 자률납입
장 기 학자금	85. 8. 1 이전대출좌	거치기간(재학기간) 경과후3년이내	원금: 거치기간(재학기간)경과후 3년간 매월균등분할상환 이자: 거치기간중에는 대출후 매3개월, 원금상환기간중에는 매월납입
	85.8.1~89.12.21 대출좌	거치기간(재학기간) 경과후5년이내	원금: 거치기간(재학기간)경과후 5년간 매월 균등분할 상환 이자: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대출후 매월납입
	89. 12.22 이후대출좌	"	원금: 거치기간(재학기간) 경과후 5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이자: ·거치기간중에는 매월, 매3개월 또는 매6개월단위로 납입 ·원금 분할상환기간중에는매월단위로 납입

주) 장기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으로 군복무예정자는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매월납입대출금 기한 연기절차를 취하시면 군복군복무기간만큼 거치기간을 연장하실수 있으며 군복무 기간중에도 이자는 매월 납입 하여야 합니다.

2.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시게 되면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시게 되면 은행으로서는 제때에 회수를 못하게 되므로 자금의 회전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보다 많은여러분의 학우들에게 융자하여 드리고자하는 저희은행의 노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됩니다.

3.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고 계시는 학생여러분에게

연체가 정리되지 않으면, 학자금 대출의 확대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한편 일반시민대중이 저축한 자금으로 융자하여드리고 있는점을 십분 감안 하시어 연체금 정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득이하여 연체를 하시는 분은 대출을 받으신 지점에 상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 민 은 행